

사료 속의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그리고 압록강(鴨綠江)

Baekdu, Changbai and Amnok in Historical Records

남의현*

국문요약 중국은 오래전부터 만주의 역사를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경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역사 논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만주에서 형성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며, 한국사와 만주사의 역사적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어느 시점부터 백두산을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장백산과 그 산맥으로 연결된 지역의 역사문화를 장백산 문화로 인식하고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장백산 문화론(長白山文化論)'이 그것이다. 장백산 문화론이 완성된다면, 한국의 역사는 만주와 단절되어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며, 이러한 역사 논쟁은 미래의 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요·금·원·명 등 고대의 장백산은 현재의 백두산과 동일하지 않으며,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불리며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은 시점이 청조 성립 후 불과 몇백 년 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성경통지』에 묘사된 『장백산도(長白山圖)』도 백두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장백산 지도임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장백산 문화론 곧 고대부터 장백산과 백두산은 같은 산이며 장백산을 둘러싼 모든 역사와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장백산, 백두산, 압록강, 금사, 만주원류고

- 차례**
1. 서론
 2. 『금사(金史)』에 기록된 상경(上京) 회령부(會寧府)의 장백산
 3. 길림(吉林) 합달령(哈達嶺)의 장백산과 압록강
 4.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시기의 장백산
 5. 결론

1. 서론

중국은 오래전부터 만주의 역사를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만주 역사 재편 작업은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3년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의 역사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의 만주사 재편 작업은 만주에서 형성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같은 왕조를 독립 국가가 아닌 지방정권으로 왜곡하고 있고 장백산 같은 지리적인 분야에까지 확대하였다.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면서 백두산에서 연결되는 모든 산맥을 '장백산 문화론(長白山文化論)'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백산맥 지대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 등을 ‘장백산문화론’에 포함해 중국화하고 있다. 그리고 장백산은 곧 백두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백산 문화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백산이라는 하나의 산에서 그 이름을 딴 문화론이다. 장백산 문화라는 개념은 협의로는 장백산과 관련된 민족들의 생활방식, 의식, 사상, 풍속, 도덕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을 넓게 잡으면 장백산과 관련된 물질 및 정신과 관련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장백산 문화는 광의의 개념을 추구하여 장백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장백산 문화로 정의하고 이것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문화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은 우리의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장백산은 만주 지방에서도 4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 4대 명산은 백두산(白頭山), 천산(千山), 봉황산(鳳凰山), 의무려산(醫巫閭山)이다. 이 중 해발이 가장 높은 산이 장백산 곧 백두산이며 중국은 백두산을 ‘제일조봉(第一祖峰)’, ‘만산지조(萬山之祖)’ 등으로 부르며 만주 곧 동북지방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주에는 시대를 달리하며 여러 개의 장백산이 존재해 왔으며 중국이 현재의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나라 시기에는 흑룡강성 하얼빈 부근 아성시(阿城市) 곧 상경 회령부에 장백산이 위치하였다. 이후 명대에는 삼만위(三萬衛, 현재의 요령성 개원시) 동북쪽에 위치하며 1천여 리의 산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길림 합달령에 해당한다.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흑룡강성 아성시에서 길림 합달령으로 온 것은 건주여진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명대 여진의 중심 세력인 건주여진은 합달령 부근의 합달(哈達)과 휘발하(輝發河) 유역에 많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여진족은 휘발하 유역에서 환인 지역으로, 다시 지금의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하며 생존을 도모하

고 부족을 통합해 나갔다. 백두산은 하나의 산이라기보다 넓은 의미의 산맥이다. 중국 지리 지형과 관련된 고지도나 현대 지도집을 찾아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흥안령과 압록강 방면 모두를 장백산으로 표시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길림 합달령도 장백산맥 지역에 포함된다.

중국은 이미 2004년 백두산 부근의 안도현(安圖縣)에 장백산문화박물관(長白山文化博覽城)을 건설하여 장백산 문화를 선전하는 등 장백산 지역의 문화를 중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길시에서 멀지 않은 안도현에서는 2만 년 전의 선사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중국은 이들을 백두산 지역의 최고 인류로 평가하고 장백산문화 창조의 시발로 삼고 있다. 곧 안도인은 장백산 문화를 창조했으며, 안도인의 문화가 장백산의 문화 출발점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곧 이미 선사시대부터 장백산의 핵심인 안도인이 장백산 문화를 창조, 발전, 계승, 전파한 중심축의 하나라고 선전한다.¹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백산맥의 중심이 백두산이었다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역사인식이 왜곡된 것이며 장백산은 산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만주에는 여러 개의 장백산이 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의 백두산은 청나라 이전 장백산이라고 불린 적이 없으며 여진족이 숭배하던 장백산은 흑룡강성 아성시와 길림 합달령 부근에 있음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여러 곳에 산재하는 것일까. 만주인들이 금·원·명 시대에 숭배하던 장백산은 어떻게 잊혀져 갔고 언제부터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불렀을까.

고대 사료에 장백산은 태백산(太白山), 백산(白山), 도태산(徒太山), 불함산(不咸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청나라 이전 장백산을 백두산으로 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고대 사료에 등장하는 장백산 등이 모두 현재의 백두산이라고 인식하면서 금사나 명사 등의 청나라 이전의

1 『東北史地』, 2004년 10期, 「長白山文化博覽城主體竣工」, p.50.

장백산은 언급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고대 사료에 나타나는 장백산과 현재의 백두산과 같은 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료와 고지도에 백두산과 장백산은 다르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료 고증을 통해 오늘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장백산 문화론의 주장, 곧 백두산은 고대부터 장백산이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하였다.²

본 연구는 청나라 이전 장백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 『청실록』, 『금사』, 『만주원류고』 등 기본 관련 사료를 우선 살펴보고자 하였다.³ 청나라 이전 장백산이 백두산이 될 수 없다는 근거로 함께 압록강의 위치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나라 이전의 장백산에서 압록강이 발원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 압록강은 또 하나의 압록강이 될 수밖에 없다.⁴ 지명은 항상 민족의 이동과 함께 따라다닌다. 장백산이라는 지명도 흑룡강 지역 회령현에서 길림 합달령으로, 그리고 청대 강희제가 정계비를 설치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지금의 백두산으로 점차 옮겨오면서 조선에서는 여전히 백두산, 청나라에서는 장

백산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압록강 역시 고대의 사료를 분석해 보면 위치와 특징상 요하(遼河)로 나타나며 지금의 압록강으로 지명이 이동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료분석을 통해 금나라 이후 청대까지 사료에 나타나는 장백산의 위치를 살펴보고 장백산문화론의 논리를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2. 『금사(金史)』에 기록된 상경(上京) 회령부(會寧府)의 장백산

『금사(金史)』는 금나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원나라의 탈탈(脫脫) 등이 1343년에 편찬을 시작해 1344년에 완성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14세기에 작성된 만큼, 금나라 시기와 편찬 당시의 지리정보가 담겨있다. 즉, 이 책을 통해 금나라나 원나라 시기의 장백산의 대략적인 위치와 성격을 알 수 있다. 『금사』 본기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오대(五代)시대에 거란(契丹)이 발해(渤海)를 취하였는데,

이때 흑수말갈(黑水靺鞨)이 거란에 속하게 되었다. 흑수말갈을 중심으로 그 남쪽의 여진을 숙(熟)여진, 그 북쪽의 여진을 생(生)여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북쪽 생여진의 땅에는 혼동강(混同江)과 장백산이 있다. 혼동강은 흑룡강(黑龍江)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이른바 백산(白山)과 흑수(黑水)이다.⁵

이 기록을 요약하면, 흑룡강을 혼동강 또는 흑수로도 불렀으며, 흑수 지역에는 흑수말갈이 살고 있었다. 흑수말갈 북쪽에는 생여진이 살고 있었고, 생여진 지역에 장백산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백산은 백산으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금사』 기록에서 흑수, 혼동강, 흑룡강은 모두 같은 강을 의미하며, 백산은 장백산이다. 따라서 『금

2 현재의 백두산이 청나라 이전 장백산이 아니었다는 논문은 복기대, 고광진, 최원호의 『시론 '장백산'과 '압록수'의 위치검토』(선도문화 13)로 발표된 바가 있다. 이 연구성과는 주로 『금사』 이전의 사료를 중심으로 장백산과 압록강이 오늘날의 백두산과 압록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금사』 등 금대 이후 사료에 나타나는 장백산 기록과 지도를 첨가하여 고대의 장백산과 백두산이 다른 산임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3 이외에도 『원대주의집록(元代奏議集錄)』, 『동북변방집요(東北邊防輯要)』, 『동북여지석략(東北輿地釋略)』, 『성경강역고(盛京疆域考)』, 『흑룡강여지도설(黑龍江輿圖說)』,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동삼성여지도설(東三省輿地圖說)』, 『방여고증(方輿考證)』, 『원일통지(元一統志)』, 『영고탑지방향토지(寧古塔地方鄉土志)』, 『흑룡강지고(黑龍江志稿)』 등 장백산이 기록된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였다.

4 『通鑑』 권197과 『資治通鑑』 音注. 이 두 사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대의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다. 고대의 압록강은 혼동강으로 불렸다. 이 압록강은 거란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말갈의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송화강과 흑룡강도 혼동강이라고 불렸다. 송화강은 흑룡강으로 연결되는 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하, 송화강, 흑룡강을 모두 혼동강이라고 부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서』, 『당서』, 『요사』, 『금사』 등에 나오는 압록강이나 압록수를 현재의 압록강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5 『금사』 卷1, 本紀第1.

사』 기록 속의 혼동강 유역의 장백산은 현재의 백두산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말갈족이 『금사』에 기록된 이유는 말갈이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금사』에 따르면 금나라의 선조는 말갈씨이며, 말갈은 물길(勿吉)로, 고대 숙신(肅愼) 씨와 연결된다. 즉, 숙신, 물길, 말갈, 여진은 넓게 보면 같은 계보를 가진 민족으로 『금사』는 기록하고 있다.⁶

북위(北魏) 시기에도 백산과 흑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북위 시기 물길 7부가 있었는데, 숙말부(粟末部)·백돌부(伯咄部)·안거골부(安車骨部)·불날부(拂涅部)·호실부(號室部)·흑수부(黑水部)·백산부(白山部)가 그것이다.⁷ 7부 중 흑수부와 백산부가 있으며, 부족 이름에 나오는 흑수와 백산은 흑룡강과 장백산임을 쉽게 알 수 있다.⁸

또한 장백산 주위에는 금나라의 수도인 상경(上京) 회령부(會寧府)가 있었다. 『금사』 지리지에 따르면, 회령부는 처음에 회령주(會寧州)였으나 태종이 도읍을 상경으로 정하면서 부로 승격하였다. 회령부는 지금의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성구(阿城區) 남쪽 교외에 위치해 있다. 당시 회령부의 호수는 31,270호였으며, 경내에 장백산(長白山), 청령(靑嶺), 마기령(馬紀嶺), 발야정(勃野淀), 녹야정(綠野淀), 안출호아(按出虎河 또는 아술호(阿木湖)), 혼동강(混同江), 내류하(洮流河) 등이 있었다.⁹ 이 기록을 보면 회령부 부근에 장백산과 혼동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금나라 시기 회령부에 있는 장백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금사』에 따르면, ‘장백산은 왕조를 일으킨 땅에 있으니, 예에 따라 존숭하여 봉작(封爵)을 내리고 묘우(廟宇)를 당연히 건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조를 일으

킨 땅이라는 의미는 오랫동안 여진족이 살던 중심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유관 부서의 건의에 따라 1172년(大正12), 칙지를 받들어 장백산을 ‘흥국영응왕(興國靈應王)’으로 봉하고, 장백산 북쪽에 제사를 위한 묘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¹⁰ 그해 12월, 예부(禮部), 태상사(太常司), 학사원(學士院)에서 칙지를 받들어 장백산을 ‘흥국영응왕’으로 봉하고, 장백산 북쪽에 묘우를 세웠다.¹¹ 1175년(대정 15) 3월에는 장백산을 책봉하는 책서(冊書)와 의물(儀物)을 상주하여 구류관(九旒冠), 구장복(九章服), 옥책(玉冊), 옥함(玉函), 향(香) 등을 마련하고, 정사와 부사 각 1인을 파견하여 회령부로 보냈다.¹² 제사를 지내는 책문(冊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황제가 지금 말하기를 …장백산은 우리 금나라의 덕을 실어서 그 높음을 우리러 봄에 실로 생각건대 우리 구방(舊邦)의 진산(鎭山)이다. 혼동강의 빛나는 흐르는 물은 이곳에서부터 발원하였다. … 드디어 짐은 천자로 전대 군왕의 아름다운 공업(功業)을 계승하여 천자로서 사해(四海) 안과 명산 대천에 제사 지내지 않음이 없다. … 어찌 그 예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장백산의 제례에 복식, 작호가 공후의 윗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걸맞을 수 없다. 지금 모관 아무개를 파견하여 부절(符節)을 가지고 제물(祭物)을 준비해서 이 산의 신을 책봉하여 흥국영응왕으로 삼고, 아울러 유관 부서에 칙령을 내려 세시(歲時)에 봉사(封祀)하게 하였다. 아! 묘(廟)에서 제향(祭享)을 거행함이 만억 년에 뻗치기를! 금나라의 길상(吉祥)은 산과 함께 극한이 없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¹³

금나라는 이로부터 매년 향을 하사하고, 유관 부서에 명령을 내려 봄과 가을 두 번째 달에 날짜를 택하여 장백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또한 1193년(明昌4), 황제가 친히 장

6 『金史』 卷1, 本紀第1.

7 『金史』 卷1, 本紀第1.

8 여진의 선조에 대한 기본적인 통설은 옛날 숙신(肅愼, 흑룡강, 송화강 일대) 땅에 거주하였는데, 북위 시기에 물길(勿吉)이라 불렸고, 수(隋)나라 시기에는 말갈이라고 하였으며, 당(唐) 초기에는 흑수부(黑水部)와 숙말부(粟末部) 두 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고구려의 별종으로 뒤에 가서 숙말부가 강해져서 발해국(渤海國)을 세우는 세력이 되었으며 흑수부는 그들에게 귀속되었다.

9 『金史』 卷24 志第五 / 地理上 上京路.

10 『金史』 卷35 禮8 / 諸神輦祠.

11 『金史』 卷35 禮8.

12 『金史』 卷35 禮8.

13 『金史』 卷35 禮8.

백산을 개천홍성제(開天弘聖帝)로 봉했다. 이후 대방산(大房山)의 신도 책봉하여 보릉공(保陵公)으로 삼았는데, 그 예는 장백산과 같았다. 이처럼 금나라 시기 장백산은 여진족이 제사를 지내는 주산이었으며, 그 위치는 흑룡강성 상경 회령부 아성시 부근에 있었다.¹⁴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과 함께 흑룡강성 상경 회령부 지역에 장백산이 표시된 지도가 있을까? <지도 1>을 살펴보자.



<지도 1> 『契丹國志』에 기록된 장백산과 여진 위치. 위 지도는 남송 시기에 그려졌으므로 금나라의 장백산 곧 상경회령부 부근의 장백산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 1>은 『거란국지(契丹國志)』에 나오는 지도이다. 『거란국

지』는 남송 초기 비서승(秘書丞) 엽용례(葉隆禮)가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이다.¹⁵ 『금사』의 기록에 따르면, 숙여진이 장백산 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지도상의 장백산은 백두산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도1>을 보면 요나라 상경 아래 쪽에 황룡부(黃龍府)가 있다. 『원대주의집록(元代奏議集錄)』 등을 살펴보면 금나라가 요나라의 황룡부를 점령할 때 압록강을 건넜다는 “도압록, 취황룡(渡鴨綠, 取黃龍)”, 즉 “압록강을 건너 황룡부를 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금나라가 황룡부를 공격하기 위해 건너 압록강은 위치상 현재의 압록강이 될 수 없다.

황룡부는 현재 연구에 따르면 길림성 장춘시 농안(農

安)이다.¹⁶ 이 위치가 맞다면 동쪽에서 농안현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강은 송화강의 지류인 이통하(伊通河)이다. 송화강도 흑룡강과 강줄기로 연결되어 혼동강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많다. 이 때문에 사료에는 흑룡강과 송화강과 그 지류가 혼동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시 금나라가 성장하면서 송화강이 금나라와 각축을 벌이는 지역이었으며, 이 강이 압록강이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록의 발음인 ‘yalu’는 만주어로 ‘경계(境界)’를 뜻한다. 경계가 되는 강을 여진족 등 만주의 민족들은 압록강, 즉 ‘야루장’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압록은 만주어 ‘야루’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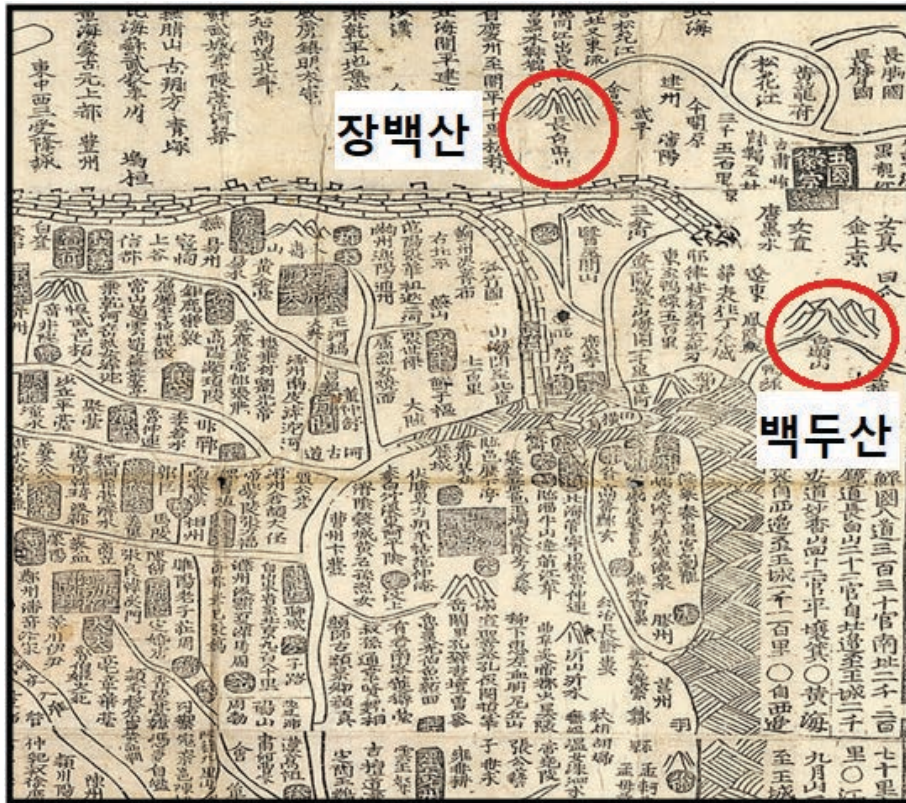
<지도 2>는 1666년 조선의 김수홍(金壽弘)이 만든 지도이다. 김수홍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다. 이 지도는 축약된 지도지만 주요 지명

¹⁴ 회령부는 지금의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성시 남쪽 교외 2킬로미터 지점이다. 1115년(收國1), 금나라 태조 아골타(阿骨打)가 황제가 된 후 회령주에 주둔하였고, 1124년(天會2), 태종이 회령부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회령주에서 회령부로 승격시켰다. 1138년(天眷元年) 8월, 희종(熙宗)은 회령부를 수도 상경(上京)으로 삼았다. 회령부는 1153년(天正元年), 해릉왕(海陵王)이 연경(燕京,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1157년(正隆2), 상경의 칭호를 삭제했으나, 세종(世宗) 시기인 1173년(大定13) 7월에 상경의 칭호를 회복하면서 금나라의 배도(陪都)가 되었다.

¹⁵ 『거란국지』는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나라 21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요사(遼史)』보다 더 일찍 찬수되었으며 요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왕, 후비, 제왕(諸王), 외척, 대신, 송과의 관계, 지리, 정치 등 요나라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¹⁶ 孫文政, 『白山黑水之間』,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2. pp.187~188

¹⁷ 명대 이전 압록강이 요하라는 연구성과는 복기대 외, 『고려시대 서북계 이해』(우리영토, 2020),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주류성, 2017), 윤한택,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다』(THE PLAN, 2018)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지도 2〉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

과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회령(會寧)과 장백산(長白山)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은 한반도 쪽 두만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즉, 이 지도가 그려진 조선시대 17세기에도 장백산과 백두산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금사』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청조의 발상지에 장백산이 있으며, 이곳에 북해 묘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금년은 황제(역자: 건륭제)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므로, 각 성(省)에 조서를 반포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역대 제왕릉(帝王陵), 선성묘(先聖廟), 악(嶽)·독(瀆)·풍(風)·운(雲),뢰(雷),우(雨) 등의 신들에게 치제(致祭)하였으며, 장차 춘3월 초 3일에 계주(薊州)에 행차하여 강희 황제의 능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황명릉(皇明陵)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길에서 흠차사신(欽差使臣)을 만나서 탐문하였더니, 내각시독학사 윤찬도(尹贊圖)가 어명을 받들고 북해묘당(北海廟堂)과 성경(盛京) 복릉(福陵)과 소릉(昭陵) 그리고 흥경(興京) 영태

릉(永泰陵)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북해 묘당은 장백산에 있는데 청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묘당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¹⁸

위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청조의 발상지에 북해와 장백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조의 발상지는 앞서 『금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얼빈 회령부 부근에 있는 장백산을 ‘흥왕지(興王之地)’라 하여 발상지로 삼고 묘우를 설립했다.

〈지도 3〉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장백산과 백두산을 다르게 인식했으며, 장백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이 서로 다르

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장백산과 백두산을 각각 다른 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두 개의 압록강을 구분하고 있었다.

금나라는 회령부에 있는 장백산 이외에도 흑룡강과 같은 강에도 묘우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 1185년(대정 25년), 유관 부서에서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옛나라에 태조가 요나라를 정벌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곧바로 혼동강을 건너는데 강의 신(神)이 도와서 영묘한 감응이 밝게 나타났으니 당연히 사우를 짓고 봉작을 더해서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황제는 강의 신을 봉하여 흥국응성공(興國應聖公)으로 삼았으며 치제는 장백산의 의식과 같게 하였다.¹⁹

청대 방식제(方式濟)가 찬술한 지리서 『용사기략(龍沙紀

18 『朝鮮王朝實錄』 正祖 9년 4월 무술.

19 『金史』 卷35, 禮8.



도록 명령한 것이다. 만약 1675년 당시 강희제가 선조들의 발상지인 장백산을 백두산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백두산은 청나라 건국의 주체 세력인 건주여진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조선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길림(吉林) 합달령(哈達嶺)의 장백산과 압록강

2장에서 우리는 『금사』 등의 사료를 통해 금나라 사람들이 상경 회령부에서 제사를 지내던 장백산이 오늘날의 백두산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성경통지』의 흑룡강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살펴보자

『성경통지』에 이르기를 흑룡강은 살합련강(薩哈連江)이다. 살합련(薩哈連, sahaliyan)은 검다는 의미이다. 『금사』에 이르기를 혼동강은 일명 흑룡강인데 강물이 조금 검은 빛이 난다. 고찰해 보면 혼동강은 장백산에서 발원한다.

방식제는 1676년에 태어나 1717년에 사망했으며, 이는 강희제 치세 기간과 일치한다. 강희 연간 1712년은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해이다. 그럼에도 혼동강 지역에 장백산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장백산을 현재의 백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675년(강희 16년), 강희제는 내대신 각라오목눌(覺羅吳木訥)을 시켜 장백산을 답사하게 했는데, 그 장백산은 오늘날의 백두산과는 다른 산이었다. 강희제는 장백산이 청조의 조상들이 발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 제사지내

번 장에서는 회령부 외에도 길림 합달령에 또 하나의 장백산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송대(宋代)의 이심전(李心傳)이 저술한 『건담이래조야잡기(建炎以來朝野雜記)』에도 장백산과 압록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여진의 땅은 거란의 동북경(東北境) 장백산에 있고 그 장백산 아래 압록강의 수원지 있는데 옛날 숙신의 땅이다. 이 숙신은 한나라 이후 읍루 물길, 말갈로 부르다가 오대 시대에 여진으로 칭했다.²⁰

이러한 기록을 보고 오늘날 연구자들은 압록에 초점을 두고 이 기록의 장백산은 백두산으로, 압록강은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건담이래조야잡기(建炎以來朝野雜記)』의 기록대로 길림이나 흑룡강 쪽 장백산 주위에 압록강이 그려진 지도는

20 李心傳撰, 『建炎以來朝野雜記』卷19.



〈지도 4〉『중국도(中國圖)』. 건주여진 지역에 장백산이 있으며 백두산은 조선 쪽에 그려져 있다.
백두산과 장백산이 다른 산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없을까. 우리는 이미 〈지도 3〉에서 두 개의 압록강이 그려진 지도를 확인한 바 있다.

〈지도 4〉를 살펴보면 건주 지역에 장백산이 표시되어 있으며, 한반도 쪽에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다. 우선 장백산과 백두산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청 시기의 건주(建州)는 일반적으로 지명으로 사용되었지만,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나라는 명대의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을 통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나라를 건국했다. 명대 건주여진 중 건주좌위(建州左衛)는 길림 합달령과 용강산맥 지류들이 모여 형성된 휘발하(輝發河) 유역의 봉주(鳳州) 고성(古城)을 중심으로 삼았다. 봉주는 현재 길림성 매화구시(梅河口市) 산성진(山城鎮) 부근으로, 합달령 산맥과 가까운 지역이다. 휘발하 유역에 분포하던 휘발부는 부족을 데리고 이동하였으므로 개원 북쪽과 철령(鐵嶺)과 무순(撫順) 동쪽에도 그 지명들이 보인다.²¹

²¹ 연구성과에 따르면 건주(建州)는 발해 시기 솔빈부(率賓府)이다 솔빈부는 지금 행정구역상 흑룡강성 동녕시(東寧市) 대성자 고성(大城子)古城 지역이다. 현재의 수분하(綏芬河) 유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명대에 여진은 건주위, 건주좌위, 건주우위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길림합달령의 휘발하 유역이 중심지였다. 건주세력이 이동하면서 지명도 따라갔기 때문에 건주라는 지명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지도 4〉에서 장백산은 하나의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곳에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832년(도광 12년)에 제작된 『황조여지전도(皇朝輿地全圖)』에서는 현재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장백산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08년(광서 34년)에 제작된 『대청제국전도(大清帝國全圖)』에서는 장백산맥의 범위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북으로 블라디보스톡까지, 동남으로는 압록강까지 표시되어 있다.

장백산맥에 포함되는 길림 합달령은 길림성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은 휘발하와 오룡하(鰲龍河), 음마하(飲馬河), 동요하(東遼河)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합달령에는 남루산(南樓山, 1,404미터), 조대계산(肇大鷄山, 1,258미터), 경령남산(慶嶺南山, 914미터) 등 해발 800~1,200미터 이상의 봉우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합달령 서남쪽은 동요하의 발원지다. 『금사』에 나오는 상경 회령부가 금나라 여진족의 발상지라면, 이곳 합달령 지역은 명대 여진족의 중요한 발상지 중 하나이다. 동요하 유역의 요원시(遼源市)에는 청나라 황제들이 신성시하고 사냥을 즐기던 성경위장(盛京圍場)이 있었다. 이 지역은 작은 구릉들 사이에 작은 분지들이 분포하여 요원(遼源), 매하구(梅河口) 등 비교적 발달한 농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했다. 합달령 산맥은 요령성 무순(撫順) 방향으로 이어지며, 백두산에서 뻗어 내려온 천산산맥(千山山脈)과도 연결된다. 결국 합달령도 백두산과 연결된 장백산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합

城)지역이다. 현재의 수분하(綏芬河) 유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명대에 여진은 건주위, 건주좌위, 건주우위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길림합달령의 휘발하 유역이 중심지였다. 건주세력이 이동하면서 지명도 따라갔기 때문에 건주라는 지명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달령에도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흘룡강성의 하얼빈 상경 회령부, 길림 합달령, 그리고 현재의 백두산 모두에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백산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3〉에서는 장백산에서 혼동강과 압록강 두 강이 발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백산과 압록강은 같이 따라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제 고대 압록강과 관련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사료 1〉『文獻通考』

여진은 대개 고 숙신씨로 혼동강 유역 동쪽에서 세거(世居)하였다. 그곳에 장백산이 있는데 압록수(鴨綠水)의 발원지이다.

〈사료 2〉『資治通鑑』 권181

금나라 사람들은 압록수(鴨綠水)를 혼동강(混同江)이라 불렀다. 두우(杜佑)는 압록수는 너비가 300보이며…²²

〈사료 3〉『資治通鑑』 권197

『한서(漢書)』에 이르기를 압록수를 마자수(馬訾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혼동강(混同江)이라고 부른다. 이심전(李心傳)이 말하길 압록수(鴨綠水)는 거란의 동북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 옛날 숙신씨의 땅이며 지금은 여진인들이 살고 있다.²³

〈사료 4〉『兩朝綱目備要』 권13

금나라는 거란의 동북 장백산 아래에 있는 압록수의 발원지에 있었다. 대개 옛 숙신씨의 땅이다.²⁴

〈사료 5〉『建炎雜記』乙集 卷十九 遼防二

금나라는 거란의 동북 장백산 아래 압록수 발원지에 있다.²⁵

〈사료 6〉『太平寰宇記』 권173

마자수(馬訾水)는 일명 압록수라고 하는데, 수원(水源)은 동북 말갈 백산(白山)에서 나온다.…이 압록수는 큰 파란(波瀾)이 일고 정유하는 나루(津濟)들이 모두 큰 배들로 가득 차 있다. 고구려는 이 강을 천해의 요새로 삼았다. 압록수는 평균 너비가 300보로 평양성(平壤城) 서북 450리, 요수(遼水) 동남 480리에 있다.²⁶

〈사료 7〉『朱子五經語類』 권4

천하에는 3대강이 있는데, 가장 큰 강에는 혼동강이 있다.…요동(遼東)과 요서(遼西)를 이 강으로써 구분한다.²⁷

〈사료 1〉에서 〈사료 7〉을 분석해 보면, 위 기록 속의 압록강이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① 고대 마자수가 압록강, 압록수, 혼동강으로도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압록강은 장백산에서 발원하며, 장백산은 숙신, 곧 여진족의 옛 거주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③ 압록강의 너비는 평균 300보로, 당나라 시대의 척도에 따르면 약 580미터에 해당한다. ④ 마지막으로 이 압록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요서(遼西)와 요동(遼東)을 구분한다고 했다. ⑤ 『문헌통고』에서는 압록의 ‘록’을 ‘록(潑)’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록(綠)’과는 다르게 표기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요사』 등에서는 요나라 태조가 낚시를 즐겼다는 압록강을 ‘압록강(鴨綠江)’으로 표기하여 ‘록(潑)’으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압록수는 요해로 흘러가 요동과 요서를

22 『資治通鑑』 卷181.

23 『資治通鑑』 권197.

24 『兩朝綱目備要』 권13.

25 宋李心傳撰, 『建炎雜記』乙集 卷十九 遼防二.

26 『太平寰宇記』 권173.

27 『朱子五經語類』 권4 書22. 天下惟三水, 最大江河與混同江, …流入海, 其下為遼海, 遼東遼西指此水而分也.

나누는 기준이 되며, 고구려 평양성(요양)을 지키는 천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록들은 상경 회령의 장백산과 압록수가 발원하는 길림 합달령의 장백산이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 7〉『주자오경어류』는 청나라 건륭 연간에 정천(程川)이 편찬한 책으로, 청대에도 압록수가 요동과 요서를 구분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압록수가 장백산에서 발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대에 요서와 요동을 구분하는 강은 요하였고, 요금 시대에도 역시 요동과 요서의 기준은 요하였다. 요하, 특히 동요하의 발원지는 길림 합달령이다. 동요하는 합달령에서 흘러나와 남쪽으로 흐르다가 발해로 흘러들어간다.

다음 기록을 다시 살펴보자.

〈사료 8〉『朱子語類』〈卷第八十六〉

여진은 압록강에서 일어났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천하에는 세개의 대수(大水)가 있다. 곧 황하(黃河), 장강(長江), 압록(鴨綠)이 그것이다.

〈卷第七十九〉

- 주자는 말하기를 천하에 오직 세 개의 큰물이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 양자강, 황하 및 혼동강이다. 혼동강은 발원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랑개(금나라)의 옛 소굴이 바로 강에 임하여 동남으로 비껴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하류가 요해(遼海)로 되고 요동과 요서는 이 강으로 구분한다.²⁸

〈사료 9〉『大同水經』의 기록

- 풍산 홍만중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압록은 그 크기가 황하나 장강과 더불어 비교할 수 없으니 『유찬』에서 말한 압록은 우리나라의 압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순암 안정복은 말하기를 옛날 동북의 강들은 압록이라고

이름한 것이 많으며 지금 동북의 여러 강들이 다 흑룡강으로 들어가 동해로 흐르며 그 크기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희가 말한 압록은 이것을 가리킴이 아닌가 생각한다. 압록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는 수, 당 전쟁시기부터 시작되었다.²⁹

〈사료 10〉『武經總要』前集 卷16下

압록수(鴨綠水)는 고려국(고구려)의 서쪽에 있으며, 말갈국(靺鞨國)에서 발원한다.… 강의 너비는 300步이며, 평양성(平壤城) 서북쪽 450리에 있다.³⁰

〈사료 8〉~〈사료 10〉을 분석해 보면 ① 압록강은 천하 3대강이 되어야 한다. ② 또한 혼동강이 요서와 요동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요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하를 혼동강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또한 조선 중기의 문인 홍만중은 우리나라의 압록강은 중국의 황하, 장강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희가 말한 압록강이 아닌거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동북에는 압록이라 부르는 강이 많으며, 압록강은 고구려 평양성(요령성 요양) 서북쪽 450리에 있다고 하고 있다.³¹ 다시 명대의 사료 속에서 장백산의 위치를 찾아보자

〈사료 11〉『圖書編』, 〈사료 12〉『大明一統志』

장백산은 삼만위(三萬衛) 동북에 있으며 1천여 리에 걸쳐 뻗어있다.

위의 명대에 편찬된 사료 2건을 살펴보면, ① 장백산이 삼만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② 그 장백산이 1천

²⁹ 『大同水經』

³⁰ 『武經總要』前集 卷16下.

³¹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은 최근 수많은 사료를 발굴하여 현재 요녕성 요양으로 밝혀지고 있다. 요양이 평양성이라면 요양 서북쪽 450리는 현재의 요하 이외에 다른 강이 있을 수 없다. 평양성, 압록수 실수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복기대 외, 『고려시대 서북계 이해』(우리영토, 2020);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주류성, 2017); 윤한택,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다』(THE PLAN,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 리에 걸쳐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대 삼만위는 현재의 개원시(開原市)로, 개원 동북쪽은 길림 방향이며, 길림 방면에서 1천여 리 뻗은 산맥은 길림 함달령 외에는 없다. ③ 이 기록에서 장백산이 1천여 리에 걸쳐 뻗어 있다고 한 것은 장백산을 산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명대의 장백산은 압록강, 즉 요하가 발원하는 함달령 지역임을 알 수 있다.

4. 청나라 강희제(康熙帝) 시기의 장백산

앞서 살펴본 지도에서처럼 청대에 그려진 지도들에 장백산과 백두산이 여전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강희제 시기에도 백두산 외에 다른 장백산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었다. 청대에 편찬된 『만주원류고』에도 장백산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이 사료는 건륭 연간에 만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황제의 명으로 아계(阿桂) 등이 편찬한 책이다. 황제의 명을 받아 각라오목눌(覺羅吳木訥) 등이 1675년(강희16)에 장백산을 보고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²

“내대신 각라오목눌 등은 삼가 장백산을 보고 경험한 일을 신는다. 강희 16년(1675) 4월 15일에 내대신 등이 다음과 같은 황제의 유지를 받들었다. “장백산은 우리 왕조의 조종들이 발상(發祥)한 곳이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대들 네 사람은 먼저 오랍(烏拉)지방을 지키는 장군에게로 가서 길을 아는 사람을 뽑은 다음 가서 술과 음식을 올리 고 예를 행하라.”

신등은 5월 5일 출발하여 같은 달 14일 성경에 이르렀다. …오랍 지방에 이르러 장백산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였

으나 장백산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동 통 나아만의 종친인 달목포로는 약초캐고 사냥하는 사람인데 말하기를 “원래 액혈눌음 지방에 살았으며 비록 장백산에는 가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백산 아래에 가서 사냥을 하였는데… 이로 보면 장백산은 액혈눌음 지방에서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냥꾼 갈라달액혈 등이 말하기를 “말을 타고 육로로 가면 10일이면 당고 작은 배를 타면 20일이면 당는데, 만약 홍수를 만나면 길이 막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 객라라는 자가 능히 육로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신 등은 상의하여 1인당 세달치의 양식을 지니고 가되… 영고탑을 지키는 장군 파해의 말을 따라서 한척의 배에 실을 수 있는 쌀을 액혈눌음 지방에 두기로 하였다. 파해가 말하길, “큰 배는 송화강의 매우 험한 곳을 지날 수 없으니 마땅히 작은 배 17척에 쌀을 싣고 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갈라달액혈과 약속하기를, “우리가 타고가는 이 말이 살찌고 건강하니 육로로 빨리가서 장백산을 둘러보고 돌아올 때는 다시 수로를 통해 물길을 거슬러 올라서 먼저 액혈눌음 지방에 가자”고 약속하였다. …신등은 고산달살포사를 데리고 6월 2일 출발하여 온덕형하, 아호산, 고록눌립, 초이살하, 호타하, 사이포감하, 남단불록 지방을 지났다. 휘발하, 범하, 목돈립, 파극담하, 남이둔하, 돈돈산, 탁룡와하 등지를 거쳐 눌음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강이 말랐다. 뜻하지 아니하게 액혈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 반달정도의 여정이었다. …신등은 11일에 액혈눌음에 이르렀으며 살포소 등은 이미 10일에 와있었다. 앞서 간 길이 없고 온통 숲과 나무만 보이는지라 다시 살포소와 상의하여 한산의 장경 객달과 길을 아는 객라에게 명을 내려 각 기(旗)마다 감사 2명을 앞세워 가되 나무를 베어 길을 열고 가서 만약 장백산이 보이거든 어느 정도 노정이 걸리는지 보고토록 하였다. …앞서 보낸 사람이 보고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별도로 뒤에 30리 떨어져 갔습니다. 한 산의 정상에 이르니 장백산에 바라보였으며 그리 먼 것 같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아마도 1백 70~80리 정도 되어 보입니다.” 등

32 각라오목눌(覺羅吳木訥)은 『성경통지』 권57에는 각라무목납(覺羅武木訥), 권127에는 각라무눌(覺羅武訥)로 기록되었다. 강희 16년 4월 15일 출발한 기록으로 볼 때 각라무목납, 각라무눌, 각라오목눌은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 말을 하였다. 또 이어서 애함을 보내와서 말하길… ‘한 높은 산위에 이르렀던 바 멀리 장백산이 분명히 보이고 1백여 리 정도 남았는데 산 위에 조각조각 흰색 빛이 번쩍인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곧 바로 장백산발 아래 이르렀으며 한 곳을 보니 주위는 숲이 뺏뺏하고 가운데의 땅은 평평하고 둥근 곳이 있었으며 풀은 있으나 나무는 없고 앞에는 강이 있었다. …멀리 바라보는 산의 모습은 길고 넓었으며 가까이 보는 지세는 자못 둥글었다. 조각조각 흰빛으로 보인 것은 모두 얼음과 눈이었다. 산의 높이는 1백리이고 산 마루에는 못이 있으며 다섯 개의 봉우리가 물을 내려다 보면서 둘러싸고 있었다. …못의 물은 흐르지 않으나 산간에는 도처에 강이 있다. 왼쪽으로 흐르는 것은 곧 송아리오랍(松阿哩烏拉)이 되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은 대눌음하(大訥陰河)와 소눌음하(小訥陰河)가 된다. …”³³

위의 기록을 보면, 청조가 건국한 이후 1675년에 처음으로 조상들이 숭배하던 장백산의 위치를 오목눈이 찾아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목눈의 탐사 이전에는 장백산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 각라오목눈의 장백산 탐사 기록의 의의를 『만주원류고』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보면, 17세기 중엽 이전에는 청 왕조가 숭배하던 장백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기록 속에서 장백산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다.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장백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해 듣고 상상하여 한 말이다. 우리 왕조가 일어난 곳으로서 빈기(賓岐: 주왕조의 발상지)의 아름다움에 견줄만하다. 강희연간에 오목눈 등은 칙지를 받들고 가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다. 이에 여기에 부록으로 붙인다.

이러한 오목눈의 탐험 기록을 통해 장백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① 출발지는 송화강 줄

기이며, 송화강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육로로는 10일, 작은 배로는 송화강을 이용해 20일이 걸린다는 것, ② 또한, 액혈눌음 지방과 가깝고 산림으로 우거진 지역이라는 것, ③ 두만강과 압록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 ④ 백두산을 접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장백산이 백두산이었다면 조선을 통해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정상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송아리 오랍,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대눌음하와 소눌음하가 된다는 점, ⑥ 정상에서 내려올 때 사슴 무리가 있었다는 점, ⑦ 송화강에서 장백산으로 가는 경로에 휘발강이 있다는 점, ⑧ 산 정상에 못이 있고, 주변에 5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 기록에서는 몇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액혈눌음, 소눌음하, 대눌음하가 그것이다. 이 지명들은 『증정길림지리지요(增訂吉林地理紀要)』에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증정길림지리지요』의 화전현(樺甸縣)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전현은 ‘명나라 때는 법하위(法河衛)였으며 후에 백산국(白山國)의 눌음부(訥陰部)에 속했다. 눌음부는 지금의 화전현이며 이 화전현 남쪽 경계에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대눌음하(大訥陰)와 소눌음하(小訥陰)이다. 눌음부를 액혈눌음(額赫訥陰)이라고도 불렀다.’³⁴

눌음(訥陰)은 눌은(訥殷)과 같은 말로, 명나라 시기 여진이 길림 합달령의 송화강 상류에서 눌은부(訥殷部)를 형성했으며, 이후 그들이 살던 지역의 강을 눌음강(訥陰江)이라고 불렀다. 위 기록을 보면, 오늘날의 화전시가 오목눈이 찾아갔던 지역이며, 그들이 찾으려 했던 장백산에서 멀리 않은 곳이 액혈눌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목눈이 탐사한 장백산이 백두산이 아니라는 점은 백두산의 천지 주변 특징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부교리 홍

33 남주성, 『欽定滿洲原流考』, 글모아, 2010, 176~177쪽.

34 『增訂吉林地理紀要』樺甸縣조.

치중(洪致中)이 백두산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석을 세운 곳에서 바라보니 우뚝하게 치솟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나무를 부여잡고 올라가 보니 14 봉우리가 빙 둘러서서 서로 껴안고 있어 하나의 동부(洞府)를 형성하였고, 거기에 큰 못이 있는데 빗줄이 아주 검푸른 빛을 띠어 몇 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지(輿誌)』 중에는 못의 주위가 80리라고 칭하였는데, 신이 보기에 40여 리 쯤은 되어 보였습니다. 산 전체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풀이나 나무는 생장하지 않으며, 쌓인 눈이 사철 녹지 않으므로 백두(白頭)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합니다.³⁵

이 기록을 보면 오목눈이 탐사하여 찾은 장백산과 백두산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목눈이 탐사한 장백산의 봉우리는 5개였고, 홍치중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본 봉우리는 최소 14개였다는 점에서, 오목눈이의 장백산과 홍치중이 본 백두산은 전혀 다른 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도 5>와 <지도 6>을 살펴보자. 이 지도들은 성경통지에 나오는 장백산도이다. <지도 5>와 <지도 6>에는 공통적인 지명이 보이는데, 장백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중 새인눈인고 액흑눈인 등의 지명이 두 지도에 동일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산에서 내려오는 큰 물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5>에서는 압록강, <지도 6>에는 혼동강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지도 6>에는 <지도 5>에서 볼 수 없는 휘발하와 휘발성이 추가로 등장하는데, 휘발하는 여진족의 이동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지명이다. 개원 부근이나 더 북쪽인 길림 합달령과 철령 동쪽에 나타나는 지명이다. 동일한 지명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은 부족의 이동과 함께 지명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혼동강, 휘발하, 휘발성은 현재 백두산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지명들이다. 그렇다면

길림 합달령에 있어야 할 지명들이 왜 백두산 근처로 내려왔을까? <지도 5>의 압록강과 토문하 지명을 보면 이 산이 백두산일 가능성이 있지만, 토문이라는 지명 역시 만주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압록과 토문이라는 지명만으로 『성경통지』의 「장백산도(長白山圖)」를 백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이 산이 백두산이었다면 휘발하와 휘발성이 있을 리가 없으며, 또한 백두산의 압록강을 혼동강으로 표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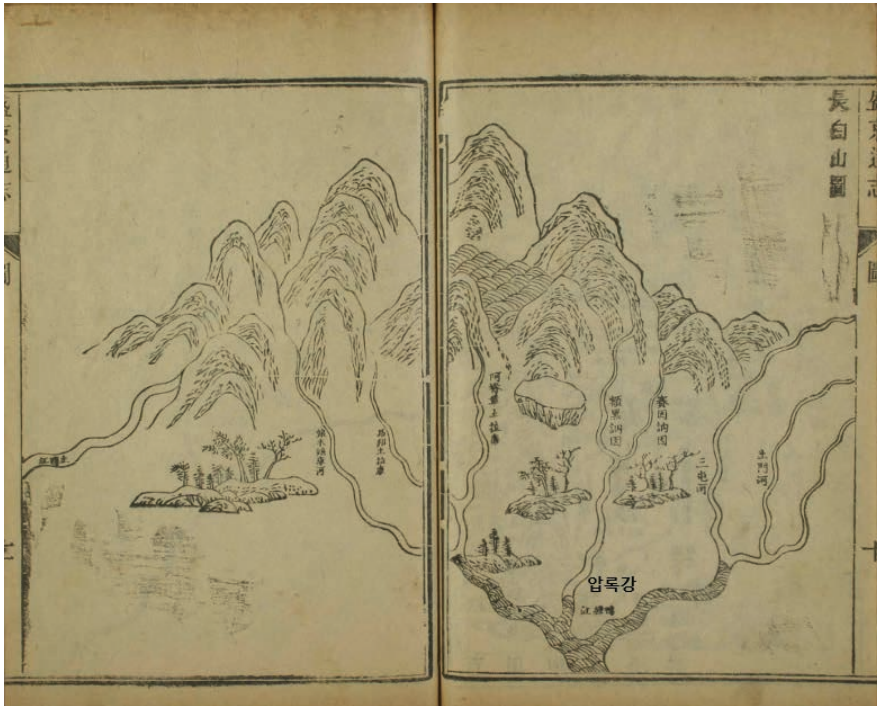
<지도 6>에 표시된 혼동강은 요하, 송화강과 그 지류, 흑룡강을 부르던 이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나라 이전에는 요하를 압록강, 압록수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 요나라 태조가 압록강에서 낚시를 했다는 기록의 압록강은 요하를 의미한다. 금나라가 황룡부를 공격하기 위해 압록강 또는 혼동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병존하는데,³⁶ 이는 압록강과 혼동강이 같은 강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백두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오목눈이 강희제의 명으로 탐사한 길림 합달령 부근의 장백산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압록강과 혼동강이 요하라면, 이 지도의 장백산은 길림 합달령의 장백산이어야 한다.

강희제가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지만, 그들이 『성경통지』에 그린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훗날 강희제는 1712년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을 시켜 봉성(鳳城) 부근의 압록강을 거쳐 장백산을 조사하도록 했다. 의주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육로로 토문강까지 가고자 한 것을 보면, 1712년의 장백산은 백두산이었던 것이다.³⁷ 1712년 목극등이 가려 했던 장백산은 백두산이었으므로 조선을 경유해 가고자 했던 것이다. 오목눈이 17세기 중엽 탐사한 장백산이 백두산이었다면, 그 역시 1712년 목극등처럼 지리에 밝은 조선을 경유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17세

³⁶ 『盛京通志』 권48 「渡混同江」조. 『元代奏議集錄』 「立政議」조.

³⁷ 『朝鮮王朝實錄』 숙종 38년 2월 정축(丁丑).

³⁵ 『朝鮮王朝實錄』 숙종 39년 1월 경자(庚子).



〈지도 5〉『성경통지(盛京通志)』(1736년[건륭1]본)의 장백산도(長白山圖)

현재의 압록강에서 볼 수 없는 새인물인, 액흑물인 등 생소한 지명이 보이며 압록강이 서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지도 6〉『성경통지(盛京通志)』(1684년[강희23])의 장백산도(長白山圖)

지금의 압록강에서는 볼 수 없는 혼동강, 위발하, 위발성 등의 지명이 보인다.

1709년(강희 48년), 강희제는 대학사들에게 산둥 지방의 갈석산을 비롯한 여러 산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학사들은 섬서와 하남이라고 답했으나, 강희제는 틀렸다고 지적하며 산해관 동쪽의 장백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백산이 산둥의 등주와 래주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바다는 200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 너머의 장백산은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³⁸ 백두산 정계비 이전 강희 연간 장백산의 기록을 보면, 강희제는 장백산을 산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장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목눈에게 장백산을 탐사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강희제 시기의 오목눈이 탐사한 장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과거 제사를 지내던 고대의 장백산에 초점을 둔 것이다. ‘동쪽은 영고탑, 서쪽은 봉천부까지 이곳 장백산에서 산맥이 뻗어 내려간다’는 기록에서의 장백산은 산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백두산 정계비 이전의 장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이라고 보기 어

기 중엽 오목눈이 탐사한 장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두산 주위에는 대눌음하와 소눌음하에 대한 기록이 없다. 대눌음하와 소눌음하는 『증정길림지리지』에서 보았듯이 함달령에서 멀지 않은 길림 화전현 지역이다.

럽다. 정계비 설치 이후에도 청나라가 제사를 지내던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황조통지(皇朝通志)』의 기록을 보면, 발상지 장백산의 동쪽에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포고리산(布庫哩山)

38 『清實錄』 강희 48년 11월.

이다. 이 산 아래에 있는 연못의 이름은 포록호리(布勒瑚里)였다.³⁹ 즉, 장백산 정상에 연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백산 옆 포고리산 아래에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현재의 백두산은 오목눌이 탐사한 여진족의 발상지 장백산이 될 수 없다.

이후 건륭 연간에 이르러서도, 강희제와 마찬가지로 장백산을 산맥으로 보는 인식이 이어진다. 건륭 연간의 장백산 기록을 살펴보자.

오악(五岳)의 머리가 되는 산이 태산(泰山)인데 사실 이 태산은 장백산이 요동반도와 발해를 통과해 산둥(山東)으로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다. 그 산들이 연결되어 산둥 등주의 복산(福山)과 단애산(丹崖山)이 되고 바닷 속에서 복룡(伏龍)이 되었다가 융기하여 서남쪽으로 800여 리 가다가 연결되어 태산이 되었고 이로써 오악의 머리가 되었다.⁴⁰

『성조인황제어제문집(聖祖仁皇帝御製文集)』

태산산맥(泰山山脈)은 장백산에서 온다. 향해해서 바다를 측량해 보니 태산은 실제로 장백산에서 발룡(發龍)한다. 장백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 오랍(烏拉)의 남쪽 산들이 사방으로 둘러싸 그 물들이 모여 송화, 압록 토문의 3대강의 발원지가 되었다. …남쪽은 2개의 큰 줄기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압록강 줄기이며 다른 하나는 통가강이다.⁴¹

『성조인황제어제문집』은 건륭 연간에 편찬된 책으로, 이 기록들을 보면 장백산에서 시작된 산들이 산맥을 이루어 요동반도로 뻗어가고, 다시 산맥들이 발해를 지나 산둥으로 이어져 태산산맥을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장백산을 단일한 산이 아니라 하나의 산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산 역시 산맥의 일

부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장백산은 하나의 산이 아닌 산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산중에서 제사를 지내던 성산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장백산의 중심지는 흑룡강에서 합달령, 다시 합달령에서 백두산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요녕, 길림, 영고탑 등의 모든 지역이 장백산맥에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실록』 가경연간의 “성경, 길림, 영고탑은 모두 장백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²

5. 결론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를 통해 장백산과 관련된 기록과 지도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장백산에 대한 고찰 결과, 금나라 시기 여진족이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장백산은 흑룡강성 회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회령은 금나라 시대 5경 중 하나인 상경 회령부로, 지금의 하얼빈시 부근 아성시(阿城市)에 위치해 있다. 금나라는 회령부의 장백산을 존숭하여 ‘흥국영응왕(興國靈應王)’으로 봉하고 묘우(廟宇)를 건립하였다.

또한 원·명 시대의 사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길림 합달령 지역에 또 하나의 장백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명대 사료에는 삼만위 동북쪽에 1천 여리를 뻗은 장백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혼동강, 즉 송화강과 압록강이 발원한다고 하였다. 압록강은 요해로 들어가 요동과 요서를 구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요하(遼河)라고 할 수 있다. 혼동강은 요하 이외에도 흑룡강과 송화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청대에 편찬된 『만주원류고』 등을 살펴본 결과, 1675년 강희제가 오목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장백산 또한 길림 합달령으로 이해된다. 길림 합달령은 넓게 보면 장백산

39 『皇朝通志』 卷1, “我朝先世發祥於長白山, 山之東有布庫哩山, 下有池曰布勒瑚里”.

40 『東北史地』, 2006년 4期, 「康熙和長白山: 歷史的對話」, p.95.

41 『聖祖仁皇帝御製文集』, 「泰山山脈自長白山來」.

42 『清實錄』 가경 15년 2월.

맥에 포함되며, 그 산맥은 개원, 철령, 무순으로 뻗어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용강산맥과 남록와집(納綠窩集)의 울창한 산림과 연결된다. 이곳은 명대 여진족이 거주하던 중요한 지역이었다.

강희연간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판본의 『성경통지』에 그들이 성산으로 여기던 장백산을 「장백산도」로 그렸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장백산을 백두산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장백산도」에 압록강과 혼동강이 같은 강으로 표시되고 이 강이 요서와 요동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휘발하와 휘발성의 추적을 통해 휘발하가 개원 북쪽 길림합달령과 철령 동쪽 등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것을 통해 「장백산도」의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청 후기에도 고지도에는 백두산과 길림, 회령의 장백산을 따로 표시하여, 백두산과 장백산이 다른 산임을 나타내는 지도가 그려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장백산문화론, 즉 고대부터 현재의 백두산이 장백산이었다는 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1602년 마테오리치가 그린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도 백두산 북쪽에 장백산이 표시될 정도로 장백산은 여진족에서 정신적으로 중요한 산이었다. 그림에도 백두산을 비롯한 여러 개의 많은 산들이 거대한 산맥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백산이 하나의 산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산맥을 형성하고 있어 여러 개의 장백산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산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백산도에 대한 세밀한 고증과 주산이 되는 장백산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契丹國志』, 『建炎以來朝野雜記』, 『金史』, 『大明一統志』, 『圖書編』, 『讀史方輿紀要』, 『武經總要』, 『盛京疆域考』, 『盛京通志』, 『兩朝綱目備要』, 『遼史』, 『元代奏議集錄』, 『元一統志』, 『資治通鑑』, 『朝鮮王朝實錄』, 『朱子語類』, 『增訂吉林地理紀要』, 『清實錄』, 『太平寰宇記』, 『皇朝通志』, 『黑龍江輿圖說』, 『黑龍江志稿』外, 『欽定滿洲原流考』

2. 단행본 및 논문

남주성, 『흙정만주원류고』, 글모아, 2010.
북기대외, 『고려시대서북계 이해』, 우리영토, 2020.
서길수, 『백두산국경연구』, 여유당, 2009.
윤한택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윤한택, 『고려국경에서 평화시대를 묻다』, THE PLAN, 2018.
孫文政, 『白山黑水之間』,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2.
『東北史地』, 2004年10期.
『東北史地』, 2006年4期.

Abstract

Baekdu, Changbai and Amnok in Historical Records

Nam, Eui-Hye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fter examining historical records on Changbaishan (長白山), it has been determined that during the Jin dynasty, the Jurchen people worshipped and conducted rituals at a mountain referred to as Changbaishan, which was located in Huining, Heilongjiang Province. Huining was one of the five capitals of the Jin dynasty and corresponds to present-day Acheng, near Harbin. The Jin dynasty revered the Changbaishan in Huining, conferring upon it the title of “Xingguolingyingwang (興國靈應王)” and constructing a temple in its honor.

Further examination of records from the Yuan and Ming dynasties reveals that there was another Changbaishan in the Hadaling region of present-day Jilin. Ming records indicate that Changbaishan was located to the northeast of Saanwanwei, from which the Hunting River (Songhua River) and the Amnok (Yalu) River were said to originate. Saanwanwei corresponds to present-day Kaiyuan, Liaoning Province. The mountain range extending about 1,000 li northeast from Kaiyuan is the Hadaling area in Jilin, and it was said that the Amnok River originates from this Changbaishan. However, the Amnok River originating from Hadaling is not the same as the modern Yalu River. Since Hadaling is the source of the Dongliao River, the “Amnok” from Hadaling refers to the Liao River.

An examination of works from the Qing dynasty, such as the “Manzhouyuanliukao (Manchu Origins),” shows that the Changbaishan that Emperor Kangxi sought to confirm in the mid-17th century through Jiaoluowumune refers to the Hadaling region in Jilin. Hadaling was an important area where the Jurchen people lived during the Ming dynasty. In the mid-17th century, to reach Changbaishan, one had to travel by boat along the Songhua River and pass through the Huifa River. The Huifa River originates in Hadaling and flows toward the Songhua River.

During the Qianlong era, the Qing dynasty began to refer to what is now Mount Baekdu as Changbaishan. However, maps from that period still distinguish between Baekdu and the Changbaishan in the Jilin or Huining regions. Records from the reign of Emperor Qianlong even show that the source of the Taishan mountain range in Shandong was identified as the present-day Baekdu, which was then recorded as Changbaishan. By the late Qing dynasty, Baekdu had become firmly established as the Changbaishan of the Qing Empi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re argument of China’s Changbaishan cultural theory—that Mount Baekdu has been Changbaishan since ancient times—lacks substantial historical evidence. Due to its vast range, the name “Changbai” appears

in various places in Chinese records. Further research and historical analysis are needed to pinpoint the exact location of the Changbaishan where rituals were historically conducted.

Keywords Baekdu Mountain, Changbai Mountain, Amnok River, Baeksan, Liao River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